

# 거주상인의 내부적 관점에서 본 재래시장 공간의 장소적 의미\*

- 청량리시장과 황학동시장을 사례로 -

진양교\* · 허미선\*\* · 홍윤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Meanings of the Conventional Market Place Derived from the Merchant's Point of View

- Based upon the Cases of Chungryangri and Hwanghakdong  
Market Place -

Chin, Yang-Kyo\* · Hur, Mi-Sun\*\* · Hong, Youn-Soon\*\* ·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Based upon the cases of two conventional market places of Seoul (*Chungryangri* and *Hwanghakdong Market*), this study seeks, in mainly the insider's view, to find out the micro meaning of conventional market places in the city. In-depth interviews for longer than six months were used to get life histories and daily life records from the merchants. From the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for the insider's view, conventional markets are places where lower class people (or people who leave their farm lands for a city) easily settle down, as showed in the two families' settlement history in the two conventional market places. The two cases also show that the merchants of these two market places are emotionally attached to and are deep-rooted in the market places. Some of the merchants' social and spatial practices in these two conventional markets are very much similar to those in their home places. In conclusion, as represented in these two markets, conventional market places are not only the places that provides jobs to their merchants but also the places where the merchants' lives are continued, developed

\*. 본 논문은 '재래시장에의 미시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서울시립대학교 99년도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과제의 전체 결과임

and reproduced. Based upon the both outsider's and insider's views, it is suggested that the recent modernization and redevelopment process to deal with conventional markets should change its direction and search for other solutions.

*Key Words : market place, market mall, sense of place, residential attachment, social network*

## I. 서론

시장은 물품의 매매라는 기능에 더하여 지역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식을 나누며, 마을축제 등을 수용하는 전형적인 공공장소(communal public space)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 재래시장을 점차 대체하고 있는 현대화된 전문유통시장. 특히 창고형 할인매장 같은 것들은 그러한 시장의 공공장소적 속성들을 급격히 변질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부터,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재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재래시장의 기본적 공간구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스턴의 페뉴일 홀 마켓(Faneuil Hall Market)과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등은 전면 재개발의 계획을 취소하고 원래 재래시장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환경개선만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현재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들로 간주되고 있다<sup>1)</sup>.

시장공간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은 시장을 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인의 관점(outsider's point of view 또는 macro view)에서 시장이 도시공간내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인의 입장(insider's point of view 또는 micro view)에서 시장이란 공간이 시장상인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논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따라서, 도시공간의 한 종류로서 재래시장공간이 함의할 수 있는 여러 의미 중에서도, 상인들의 관점에서 본 시장의 장소적 또는 미시적 의미를 실제 재래시장에서 오랜 기간 상주해 온 상인들의 구술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의 목적상 문화인류학에 바탕을 둔 생애사와 가족사 채록 그리고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유사연구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하루일과 조사 등을 주요 조사방법으로 채택했다. 논문의 결과, 즉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그리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나타난 재래시장 공간의 장소적 의미들은 도심재개발 또는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공공장소의 계획과 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우나, 이용자와 거주자 양쪽의 입장에 고르게 접근함으로써, 계획이나 설계가가 자신이 다루려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시장공간의 의미에 관한 기존 이론

### 1. 원초적 공공장소

Carr와 그 동료들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재래시장들이 1차적으로 그 지역공동체의 기본욕구인 생필품의 판매 및 구매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기능적 인자), 그 지역사람들이 만나고 교호하며 의사를 소통하는 사회적 장소인 동시에(사회적 인자), 그에 따라 지역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사회의 여러 양상에 대한 의미를 같이 도출해내는 장소(상징적 인자), 즉 3개 인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보았다(Carr, Francis, Rivlin and Stone, 1992). Carr와 동료들의 생각은 시장이 단지 상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교환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소로서의 시장의 역할을 알리고 있다. 또한 Middleton은 지역공동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communal space)에는 물품구매행위가 자유롭게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공공공간의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Middleton, 1987).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룸을 포함하는 서구사회 공공장소의 역사를 들여다 볼 때, 재래시장은 시청이나 성당전면 광장에 못지 않은 공공장소이고 도시생활과 삶의 무대였다(Mumford, 1961; Heckscher and Robinson, 1977). 특히, 중세와 르네상스시대 유럽도시들의 경우, 시장은 그 도시의 물리적 중심공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중심공간으로 기능했으며(Gratz, 1994), 12세기와 13세기 프랑스 남부에 많이 나타났던 바스티드(medieval bastides)신도시들이 좋은 사례<sup>2)</sup>이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장들도, 특히 정기시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오래 전부터 마을이나 지역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연결해주는 공공장소의 역할을 했다. 또한 시장은 온갖 혼담이 오고 가고 젊은 남녀의 사교의 장소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상인들의 굿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정승모, 1992). 구체적인 예로 온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겼다는 송파산대놀이 같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마을 축제들은 시전상인들에 의해 주관되어 장터에서 벌어졌던 행사들이었으며, 양주별산대놀이의 시작도 조선 후기 서울외곽에서의 시장변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정승모, 1995). 종합하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들 기존연구들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지역공동체생활과 도시문화의 중심이 되는 공공장소라는데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 2. 도시경제의 하부구조

도시경제라는 거시적 맥락으로 볼 때, 재래시장은 가시화된 공식적(또는 제도적) 경제부문(regulated formal sector)에 속하기보다는 비공식적(또는 비제도적) 경제부문(unregulated informal sector)에 속한다(Hartshorn, 1992). Hartshorn은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이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도시경제구조에 그 둘이 모두 필요한 존재라고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브로델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즉 무자본 지방상경민이 정착할 때 필요한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래시장과 같은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브로델, 1995). 브로델과 Hartshorn의 견해는 거시적 도시경제구조를 건강히 지탱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방에서 상경하는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위해서도 재래시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도시민민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재래시장과 같은 비공식적 경제부문에서 제공되는 허드렛일(자본이 필요치 않고 고등교육이나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이 필요하다는 면에서(고동환, 1998) 우리나라의 경우도 브로델이나 Hartshorn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삶의 장소

원초적인 공공장소로서 그리고 도시경제의 건강한 하부구조로서의 시장의 의미를 다루는 기존 문헌들의 입장은 시장이란 공간을 외부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시장상인들 입장에서 바라 본 시장의 장소적 의미, 즉, 본 논문이 시도하는 것처럼, 상인들의 '삶의 장소'로서의 시장공간의 의미를 다루는 문헌들은 많지 않다. 굳이 유사한 문헌들을 언급하자면 Zukin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Zukin은 필라델피아 북쪽에 위치한 유대인주구 상가 거리를 묘사하면서, 재래시장거리가 유대인집단의 공동체특성을 연습하고 확인하며 실천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Zukin, 1995). Zukin의 연구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 유대인들이 재래시장거리를 자신들의 마을로 인식하며, '다치 시골에서 농부가 농토에 밀착되는 것처럼' 유대인 근린주구에 밀착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란 특정 공간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즉 일반적인 공간과 사람의 밀착에 대한 문제로 확대할 수 있다면 문헌 찾기가 다소 쉬워진다. 켈벨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자기 신체의 일부 또는 자기 가족 심지어는 자기 조상의 일부와 동일시하는 인디언의 신화와 이주 역사를 다루면서, 어떤 공간이 거주자들의 생계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면 클수록 상징적인 것이든 기능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거주자가 해당 공간에 부여하는 장소적 의미와 그 밀착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켈벨, 1998). 유사한 관점에서

Relph는 하층서민계급일수록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과 밀착되는 정도(perceived residential attachment)가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공간과 밀착되는 정도가 강해지면 질수록, 그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은 반대로 약화된다고 보았다(Relph, 1976). 이밖에 Tuan은 거주기간, 친숙도 그리고 생계수단과의 관련정도 등이 공간과의 밀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Tuan, 1974).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같은 도시하층서민들의 경우, 도시내에 거주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재래시장이라는 공간에 밀착될 가능성 - 즉 예를 들면, 농촌 또는 어촌에서 각각 농부와 어부들이 농토와 바다에 밀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인들이 재래시장공간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rootedness) - 이 높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장공간의 의미, 즉 '상인들의 삶의 장소'로서의 장소적 의미를 상인들의 실제 하루일과 및 생애사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1998년의 통계는 서울시에 총 394개소의 시장<sup>3)</sup>이 소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중 거의 절반인 193개소는 체계발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재래시장에서 현대적인 유통상가로 변형되었거나, 처음부터 복층 유통상가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의 시장들이다.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201개소이다. 본 논문은 이들 201개소의 기존 재래시장들 중 동란직후 조성되어 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전형적인 재래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청량리시장과 황학동시장을 사례연구지로 선정하였다<sup>4)</sup>.

조사방법으로는 문화인류학적 조사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두 시장에 오랜 기간 상주해온 상인들의 면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조사 방법은 하루일과조사와 생애사 채록이었다. 시장이란 공간이 상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루를 통상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록하는 하루일

과조사와 그들이 상경하여 서울이란 대도시에 정착한 과정을 서술하는 생애사 그리고 가족과 친인척관계를 기술하는 가족사 등을 면담·채록함으로써 본 논문이 원하는 자료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논문이 채택한 면담방식은 개략면담과 심층면담으로 나뉜다. 면담시 약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개략면담은 상인들의 하루일과와 상인들의 사회적 유대의 개략적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적당한 심층면담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을 소요하는 심층면담은 생애사와 가족사를 채록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루일과의 조사에는 일과조사양식(DLRF)이 사용되었고, 생애사와 가족사의 경우는 피면담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기가 사용되었다.

면담의 대상자로는 각 시장별로 10명 내외의 피면담자들이 선정이 되었으나, 심층면담의 피면담자로서는 개략면담의 결과로부터 청량리시장의 김할머니와 황학동시장의 김아주머니가 선정되었다. 청량리시장의 경우,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그리고 황학동시장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8개월간 면담이 이루어졌다. 개략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양쪽 시장 모두 일주일 이내이었으나, 심층면담의 경우, 라포가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장기간을 소요했다.

### IV. 상인들의 하루일과와 생애사

#### 1. 하루일과

그림 1은 청량리시장의 중앙에 위치한 김할머니 노점과 큰딸이 경영하는 큰바다횃집 그리고 차후 자세히 언급될 '만남의 집'을 보여준다. A가 김할머니 노점인 소재한 위치이며, B는 시장사람들의 사회적 교계장소인 왕대포실비집('만남의 집')이다. 김할머니 노점의 크기는 7-8평방미터(약 2.5평정도)이고 시장가로중심에 있는 전봇대와 면하고 있다. C는 만남의 집주인이 사는 시장 다세대주택이고, D는 김할머니의 큰 딸 내외가 경영하는 '큰바다횃집'이다. 김할머니의 노점은 C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시장 전체건물은 2-3층이 가장 많으며 5층 이상 건물은 없다. 2층 이상은 하숙 또는 월세 등의 저렴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그림 1 김할머니의 노점 위치

있다.

그림 2는 조사된 김할머니 하루일과의 경로를 요약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 김할머니는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대충 청소와 아침식사를 준비한 뒤 곧 바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할머니의 노점 점포로 출근을 한다. 집에서 시장경계까지는 약 400미터정도이고 시장 중심부에 있는 노점은 약 450미터 정도에

위치해 있다. 할머니의 하루일과 중 시장체류시간은 보통 17시간정도이다. 할머니의 일과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적지인 '민남의 집'과 '큰바다햇집'은 5-6미터 거리에 인접해있다. 할머니가 하루일과 중 시장경계의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집에서 점포로 나올 때와 점포에서 집으로 돌아 갈 때이다.

그림 3은 황학동 김아주머니의 민속골동품점포가 소재해 있는 골동품골목을 보여 준다. 민속골동품점포는 골동품골목내에 현재 11개소가 잔존하고 있다<sup>2)</sup>. 김아주머니의 점포, 곡성당(그림 3의 D)은 골동품골목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의 오른쪽 지역은 주택개발사업구역이며 2003년 완공목표로 37층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내의 건물은 2-4층이 전체의 62% 정도 되며, 5층 이상의 건물은 1.2%에 불과하다. 건축구조에 있어서도 목조의층이 아직 전체 건물의 1/3에 해당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건물들은 노후하다. 목조의층 건물의 대부분이 점포들의 창고나 수리공장으로 개조되어 있다. 점포당 평균 점유면적은 골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평균 30평방미터(8평정도)이다.

그림 4는 김아주머니 하루일과의 경로를 보여준다. 새벽 6시경 기상하여 아이들 아침과 점심도시락을 준비한다. 김아주머니의 거주지는 중고품시장내에 소재하는 2층 연립주택이다. 점포와의 거리는 200미터 정도이고 도보로 10분 이내이다. 점포와 집중간, 집에서 약 100미터 정도에 민속골동품을 수리하는 소규모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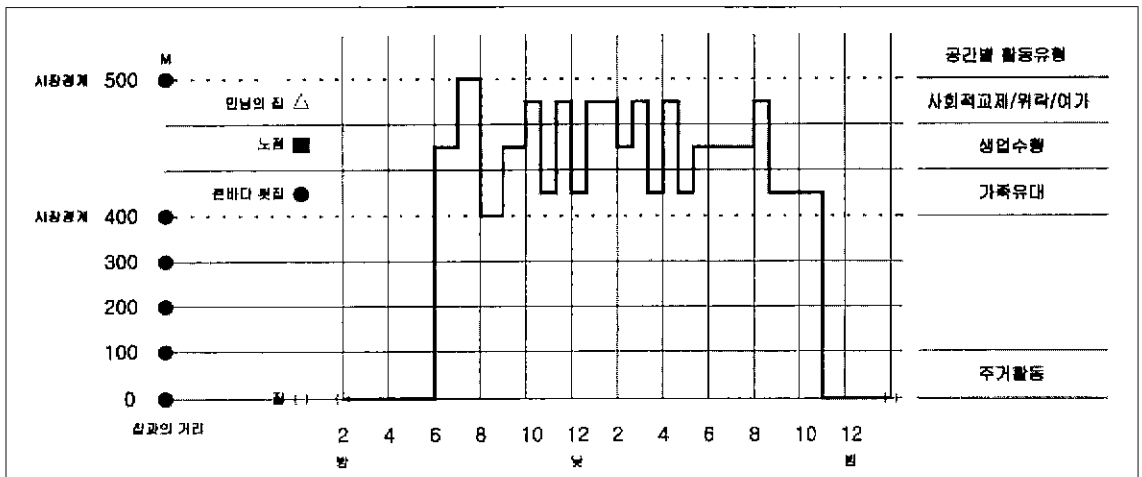


그림 2. 김아주머니의 하루일과 경로

장을 갖고 있다. 최근에 결혼하여 새로 마련한 큰아들 집은 아주머니 집에서 약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8시 30분경 남편은 공장으로 그리고 아주머니는 점포를 향해 함께 출근을 한다. 아주머니의 하루일과 중 시장 체류시간은 통상 14시간정도이며 아주머니 일과경로의 대부분은 점포와 공장 그리고 큰아들의 집에 국한되어 있다. 집이 시장경계인근에 위치한 탓에 청량리시장의 김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김아주머니가 하루일과 중 시장 바깥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 생애사

표1은 경북 상주군 태생의 김할머니의 생애사 중 청량리시장 정착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고 있다. 조사당시 65세인 김할머니의 서울상경은 1971년이다. 72년부터 청량리시장에 상주하기 시작해 시장에서 이런 저런 허드렛일을 하다가 80년에 시장내 소방도로 위의 노점 자리를 다른 상인에게서 매입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96년에 현 거주지인 재기동에 집을 마련했다. 할머니가 시장과 관련을 맺은 기간은 현재까지 28년에 달하며 그 동안 청량리시장과 인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지를 마련한 적이 없다. 둘째 아들도 96년 철도청에 고용되기 전까지 청량리시장에서 양은 장사를 했었으며 큰 딸 내외도 90년에 청량리시장에 자리를 잡고 큰바다횃집이라는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표2는 전남 곡성군 태생의 김아주머니의 생애사 중

황학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고 있다. 1943년 출생한 김아주머니는 1963년 21세 나이에 바로 옆 마을의 20세 청년과 결혼하여 시부모와 시동생을 모시고 상경 전까지 농사일을 했다. 1980년에 당시 이미 5년 전부터 둘째 시숙이 가구수리와 제작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황학동중고품시장으로 상경한다. 정착 초기에는 황학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허드렛일로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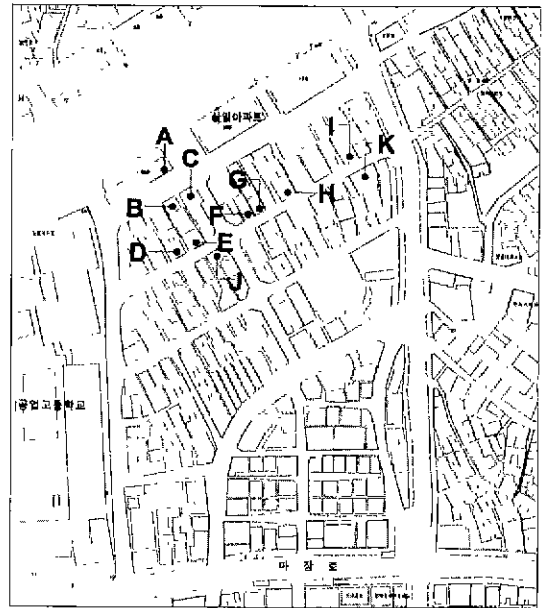


그림 4. 김아주머니 점포와 골동품 골목

범례: A 동림당 B 진성당 C 보건당 D 푸성당 E 순천당 F. 인고사  
G. 성보당 H 현화당 I 데안사 J. 민속골품 K 선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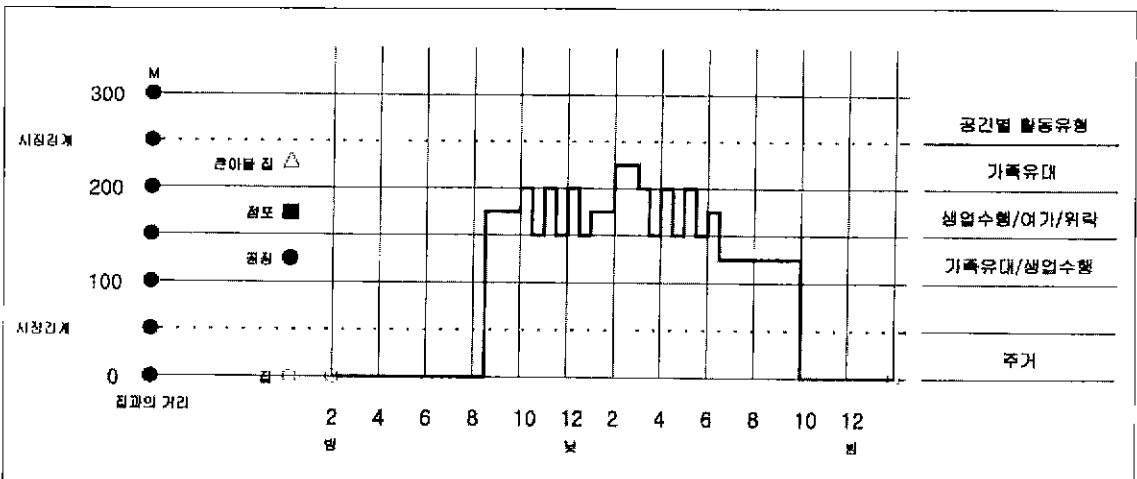


그림 3. 김아주머니의 하루일과 경로

표 1. 김할머니 연도별 생애사(生涯史) 일람표

	생애사건	외부사	나이	비 고
1933	출생		1세	경북 상주군 화서면 화서2리 '참계마을'에서 출생함. 할아버지는 '지관', 한문선생일을 했으나, 아버지는 노름을 몹시 좋아함.
71	서울 상경		39세	대구 태평동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 덕분에 서울로 상경함. 대방동에서 1년간 식모살이를 하고, 다시 을지로 '동원여관'에서도 식모살이를 함.
72	청량리로 이주, 두 번째 남편과 동거시작		40세	청량리로 이주해 와서 무당집, 제기동 식당의 식모살이를 함. 당시 '용산약국'집 식모살이를 하던 집나간 큰딸과 우연히 상봉해서 함께 살게 됨. 그 딸이 아파서 집세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갈 곳이 없자 지금 남편집에서 함께 살게 됨.
73	막내딸 출산, 큰딸 결혼		41세	당시 김할머니는 반대떡 장사를 함.
75/76	경동시장 일 시작		43-44세	시장의 잔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함
76	막내아들 상경		44세	막내아들만 서울로 불러서 중학교 교육시킴.
80/81	노점자리 확보		48-49세	권리금 100만원 (당시)을 주고 지금의 자리를 삼.
83	큰아들 상경		51세	큰아들이 군입대들 이유로 상경함.
88		서울올림픽	56세	큰아들 청량리시장에서 양은장사를 시작함.
90/91	큰딸 청량리 시장 장사시작		58-59세	큰딸이 청량리 시장에서 양은장사 시작함 '94-95년경부터는 포장마차 ('큰바다횃집')일을 시작함
96	주택 구입		64세	제기동의 집을 삼. 큰아들 철도일 시작함.

아시아게임 직후 1987년 고가구 수리 및 제작공장을 차렸으며, 92년 부터는 '곡성당'이라는 상호로 본격적인 골동민속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머니와 가족의 황학동 상주기간은 총 20년이다. 거주지가 시장경계에 있으며 상경 때부터 현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으로 같이 가게를 운영하며 공장일을 들보는 남편과 2남 3녀가 있다. 99년 3월에 결혼한 큰아들의 집도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마련했다.

### 3. 시장내에서의 상인간 사회적 교제

하루일과와 생애사 외에도 면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시장이란 공간이 두 사람을 포함한 상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긴밀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량리시장의 경우, 면담에 응한 상인들은 모두 김할머니와 할머니의 노점을 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김할머니가 상인들이 소위 '시장생활'을 무리없이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한사람이라고 구술하고 있다. 김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는 문맹임을 감안할 때, 상인들이 할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sup>9)</sup> 청량리시장내에서 상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소식과 정브를 공유하는 등 전형적인 이웃관계의 사회적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상인들간의 사회적 교류, 즉 이웃관계는 주로 미주하고 늘어선 상가들 사이의 골목에서 비정형적으로 일어나며, 상인들 사이에서 '만남의 집'으로 불리는 황대포실비집이 집중적으로 이용된다. 김할머니의 하루일과 경로에서도 보여진 것과 유사하게 인근의 상인들은 시간이 나는대로 '만남의 집'에 들러 얘기를 나누는 등 소일하며, 그 동안에 손님이 오면 이웃 상인들이 일러주거나 혹은 대신 장사를 하는 등으로 서로 돕는다. 그림 5는 청량리시장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만남의 집 내부를 보여준다. 3.5평 내외의 소규모이지만 항상 상인들로 들어차 있으며 짧게는 5분 이내 길게는 몇 시간씩 머무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이 만남의 집을 들린다. 들어오지는 않고 문 밖에서 안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경우도 많다. 또한 주인이 없는 경우, 상인들이 직접 싱크대에 있는 소주와 막걸리를 내어오고 계산도 알아서 하고 있다.

황학동시장의 경우, 상인들사이의 사회적 교류형태는 골목중심으로 비정형적인 이웃관계를 이루고 있는 등 청량리시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아주머니가 속해 있는 민속골동품상의 경우, 청량리시장과

표 2. 김아주머니 연도별 생애사(生涯史) 일람표

	생애사건	외부사	나이	비 고
1943	출생		1세	전남 곡성군 입면 약천리에서 출생함.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부친은 입면 소재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함.
80	서울 상경	80년 5월 광주사대	38세	3월경 논 너마지기 판돈 260만원으로 상경. 200만원 짜리 중앙시장 인근에 전세방 얻음. 이사비용 20만원 쓰고 40만원 남음. 시골서 가지고 온 삼베 30필을 팔아서 100만원 만듦. 남편은 들췌 시숙이 경영하는 광주당에서 조수로 일을 시작함. 시골 고향 옥과장에서 다시 삼베와 돛자리를 가져와 시장에서 노점에 내다 판. 초여름부터 요구르트 장사를 시작함. 장마때부터 나물장사를 시작함. 겨울부터 닭장사 시작함. 밤동안 으금동에서 생닭을 사서 털을 벗긴다음 오전부터 내다 판.
81-86		아시안게입	39-44세	본격적으로 닭장사를 함. 82년 시아버지가 고향에서 86세로 타계함.
87	부부가 합지박 수리공장 시작		45세	현재 곡성당 자리에 합지박 수리 위주의 공장을 냄. 매대를 병행함.
88		서울올림픽	46세	합지박 매대를 위주로 공장과 가게가 병행함.
92	곡성당 상호로 골동품점 시작		50세	인근에 모두 2군데의 공장과 창고를 마련함. 남편과 큰아들은 공장에서 고가구 수선 및 제작을 담당하고 아주머니는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함.
99	방화로 공장과 창고 일부 소실		57세	2월경 서울 시내 일원 방화 사건의 희생자가 됨. 가게와 창고 일부가 소실됨.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 상인들의 관계가 이웃관계의 사회적 유대에 혈연적 유대가 중복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개의 민속 골동품점포들 중 반수가 혈연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곡성당, 한고사, 상보당, 순천당. 그리고 태안사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은 이들 혈연관계로 묶인 민속골동품점 점포 주인들의 황학동 정착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표3에서 보여지듯 이들의 황학동 정착역사는 동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한 가족이 정착한 뒤 다른 가족이 그 뒤를 쫓는 이른 바, 릴레이 방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1세대들의 골동품업이 2세대로 연장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 V. 시장의 장소적 의미

지금까지 청량리와 황학동시장 상인들의 개략면담. 그리고 김할머니와 김아주머니의 하루일과, 생애사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이웃관계와 혈연관계 등의 조사결과를 서술했다. 이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장상인의 입장에서 본 시장의 장소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루일과 - 주거공간과 생업공간 그리고 여가공간의 일체화

김할머니와 김아주머니의 하루일과는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김할머니는 하루 중 무려 17시간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주거의 위치조차 시장에서 도보 10분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교제, 위락과 여가활동 - 할머니의 경우, 이웃상인과의 잡담 - 등의 모든 기타 활동은 생업공간인 시장에서 같이 수행되고 있다. 도보 10분이내의 주거활동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시장의 영향권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 볼 때, 할머니의 하루일과 내에서는 주거공간과 생업공간 그리고 여가공간이 일체화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황학동의 김아주머니의 경우도 김할머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아주머니도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인 14시간을 시장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주거조차 시장의 경계내에 위치해 있다. 청량리의 김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교제, 여가활동 등은 생업수행 도중에 자연스럽게 동반 수행된다. 김할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 생업 그리고 여가의 세공간이



표 3. 김이주머니와 친인척의 황학동 점프 점유사

연대	김이주머니와의 관계	점유내용	황학동 중고품시장 변천사
1965	둘째시숙의 처형	6.25때 남편을 잃은 둘째시숙의 처형이 딸 둘을 데리고 상경. 황학동의 중앙시장에 허드렛일트 자리를 잡음	60년대 고물상. 머리카락장사, 골동품점의 혼합기
65-70	둘째시숙 처형의 큰딸	중앙시장과 황학동 중고품시장 지역에서 머리카락 장사	"
70-80	둘째시숙 처형의 큰딸	'중앙당'이란 상호로 황학동 시장에서 골동민속품점 경영	70년대 골동품점 전성기
75	둘째시숙	상경하여 '광주당'이란 상호로 황학동 시장에서 고가구 또는 신가구를 수리/제작하는 가구점 개업	"
76	친정 둘째백부의 막내 아들	상경하여 사돈(사촌매형의 형)이 경영하는 '광주당'에서 조수로 일하기 시작함	"
77	둘째백부의 둘째딸	당시 봉천동에 시집와 있던 누나를 광주당에서 조수로 일하던 동생이 황학동으로 불러냄. 남편이 '태안사'라는 상호의 골동민속품점을 경영하기 시작함.	"
80	둘째백부의 셋째아들	'태안사'에서 누나와 같이 일하던 동생이 다시 고향에서 바로 위의 형을 황학동으로 불러냄. 두 형제가 상호불명의 가구수리공장을 경영함.	80년대 중고품점 전성기
80	남편+본인	80년 3월 상경. 본인은 나물장사, 닭장사. 남편은 둘째시숙이 경영하는 '광주당'에서 일하기 시작함.	"
82-83	둘째시숙 처형의 큰딸	골동품상의 장안평으로 대거 이전시 인사동으로 옮김. 중앙당이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	"
86	둘째백부의 셋째와 막내아들	자본마련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구수리공장을 그만두고 각각 '순천당'과 '한고시'란 이름의 골동 민속품점으로 개업함	"
87	남편+본인	부부가 같이 현재 '곡성당' 자리에 가구수리공장을 옴	"
92	남편+본인	가구수리공장에 '곡성당'이란 상호로 골동품점시작	90년대 중고품점과 노점의 혼합기

일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일과의 경로도에서 보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정확하게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개략 추정해 볼 때, 이 두사람의 하루일과 사이클의 진폭이 일반 출퇴근 직장인에 비해 극단적으로 좁다는 것이다. 만약 일과사이클의 진폭의 좁기가 공간에의 밀착도를 직접 나타낼 지표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하루일과경로는 이들의 삶이 이 두 시장공간에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생애사 - 시장공간과 고향마을의 동일시

하루일과와 마찬가지로 김할머니와 김이주머니의 생애사와 가족사도 상인들과 그 가족들의 상경과 정착과정을 통해, 그들이 두 시장과 맺고 있는 강한 유대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의 경우,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은 할머니가 시장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아닌지, 큰딸과 둘째 아들

다든지, 최근에 새로 구입한 주택조차 시장인근의 제기동에 소재한다는 사실들이 김할머니 가족의 청량리 시장에 대한 심리적 밀착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김이주머니의 경우도 김이주머니와 그 가족, 심지어는 친인척들까지 황학동 시장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들의 상경정착사를 통해 어느 정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김이주머니 내외의 주택뿐 아니라 최근 결혼한 큰아들의 주택도 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10가족이나 되는 친인척 집단이 차례로 황학동에 이주하고 있는 상경정착과정은 이들이 전남 곡성의 산골마을에서 유지해오던 혈연지역공동체의 속성을 유지한 형태로 황학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케 한다. 특히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논문에서 자세히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출가한 뒤 부모들을 만나러 돌아올 집이 황학동에 있어야 한다고 구슬하고 있는 것도 이점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前) 단계 - 즉 일종의 기실설정 단계, 그리고 본격적인 표집과 분석과정을 추후 거쳐야 하는 - 까지의 결과를 내놓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두 시장의 사례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재래시장을 결코 대표할 수 없으며 추가 사례연구와 함께 본격적인 검증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주5. 1982년 정부의 황학동 민속골동품점 장안평 이전계획에 의해 한때 200여 점포를 자랑하던 골동품점포들이 현재 10여개 점포에 불과하다.
- 주6. 사실상 김할머니의 시장에서의 사회적 입지는 윌모트와 영(Willmott and Young, 1960)의 연구에서 언급된 '맘(Mom)'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End) 지역 연구에서, 윌모트와 영은 '맘(Mom)'이 모든 사람들을 돕고 충고를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모(代母; Great Mother나 God-Mother)'로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 인용문헌

- 고동환(1998) 조선후기 서울의 생업과 경제활동.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서울학연구총서 8), 서울학연구소 출판부
- 백인기(1989) 수도권권기시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편찬위원회(1992), 성동구지, 성동구청
- 송기철(1966) 한국시장에 관한 일고찰 특히 서울시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고려대), 37
- 정승모(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 정승모(1995) 조선시대 서울의 상품의 유통체계의 상업풍속, 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학연구총서 3), 서울학연구소 출판부
- 진양교(1998)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서울학연구소출판부
- 조지프 캠벨(1998) 신화의 세계, 까치글방
- 페르낭 브로델(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 II(원본 1986), 주경철 옮김, 서울: 까치글방
- Carr, S., Francis, M., Rivlin, L.G. and Stone, A. M.(1992) Public Spa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tz, R B (1994) The Living City, Washington D.C.: The Preservation Press
- Hartshorn, T A.(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New York, NY:John Wiley and Sons, Inc.
- Heckscher, A. and Robinson, P.(1977) Open Spaces The Life of American cities, New York, NY.: Harper and Row
- Jackson, J. B (1994) A Sense of Place, A Sence of Tim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kson, K. T.(1985) Crabgrass Fronti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iddleton, M (1987) Man Made the Town, London' The Bodley Head Ltd
- Mumford, L.(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 Rybczynski, W.(1995) City Life' Urban Expectation in a New World, New York, NY.: Gondolier Press.
- Tuan, Y. F.(1974),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ill Inc
- Whyte, W H.(1980) "The humble street' Can it survive?", Historic Preservation, Washington, D.C ' Preservation Press.
- Whyte, W. H.(1988) City: Rediscovering the Center. New York, NY.: Doubleday.
- Will, G. F.(1982) "The Great American Lobby crisis",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 Willmott, P and Young, M.(1960) Family and Class in a London Suburb, London: Roulledge and Kegan Paul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Inc.